

## 2024년 8월 18일 "(생명의 공동체 2) 죽으심을 본받아"(빌 3:10-11)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다는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 [1]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까지 받아들이기까지 어떤 마음과 태도를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빌 2:6-8).

이 말씀은 성도가 배워야 할 사람의 본분을 가르칩니다.

(1)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여 순종하는 사람의 본분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뜻은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받으시려는 것임을 아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2)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사람 안에 왜곡되고 결핍된 것을 회복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셨지만 그 나라의 영광 속에서 화려하고 명예로운 삶과 죽음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게 하셨다면 그 누구도 내면의 실상을 보지 않고 성공과 명예를 우선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타락한 죄로 난무한 인간의 내면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죽으심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 [2]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수치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수치 속에는, 인간의 작당, 부당함, 모멸, 조롱, 폭력, 생명과 인권 훼손, 별거벗기고 나무에 매다는 등, 인간의 죄의 총화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그대로 끌어 안고 받아 내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나는 주님과 반대로 수치심이 건드려지지 않기만을 바라고 살았지만, 주님은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아버지께 영혼을 의탁하고 나아가니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수치를 받아들이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 때 내 안에 다시 사는 부활의 경이가 느껴질 것입니다.

수치심 외에 두려움, 좌절, 분노 등 다양한 내면의 문제들 속에서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됩니다. 보여주신 대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 뜻을 존중하는 길입니다.

### [3] 새 생명의 공동체

따라서 우리는 죽으심을 본받고 부활에 이르고 싶은 열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열망 가운데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부활 생명의 샘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성숙하든, 미숙하든 주님 말씀 대로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등이 발생한다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갈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모든 갈등은 나를 낮추어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라고 도전합니다.

이 때, 두 가지 축복이 열립니다.

(1) 속사람이 평화와 위로로 채워지며 속사람의 변화를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2) 관계 속에서 인내를 가지고 더욱 온유하고 편안하게 상대에게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진정한 길은 사도의 고백처럼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열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의 죄 속에서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모든 죄와 부정적 감정들이 주님 안에서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가정과 교회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역사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 [나눔의 질문]

1. 주님의 죄 없는 죽으심 속에는 인간의 어떤 죄악의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열거해 보십시오.
2.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는 의미를 말씀해 주세요. 주님은 사람의 죄가 폭로된 십자가를 통해 어떤 길을 개척하셨습니까?